

“민족공멸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하라”

향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호국영령 열 기려



향군은 3월22일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고 희생장병을 추모했다.

각급회, 다양한 추모행사 통해 희생정신 추모

향군은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인 3월22일 서초동 향군회관 앞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향군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국가안보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은 민족공멸을 초래할 핵무기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향군 임직원들과 참전 친목단체 회원 등 200여명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

고 다시는 아픔의 역사, 희생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안보 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배상기 사무총장은 김진호 회장을 대신한 기념사에서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호국 영령들의 피와 땀 그리고 유가족들의 눈물로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과 군은 일치단결하여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오만에 의한 무모한 도발은 결국 북한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1,000만 향군은 대

한민국의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데 심기일전하여 매진해 갈 것”을 다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정부가 북한이 2000년 이후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감행한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2010년), 연평도 포격(2010년) 도발을 상기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가장 희생이 컸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던 3월26일 금요일을 고려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2016년부터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향군 각급회에서도 대국민 안보제도 활동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결의대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정기 전국 총회 소집공고

당회 2019년도(제72차) 정기전국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

- 다 음 -

- 1.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13:00
- 2. 장 소 : 공군회관 3층 그랜드볼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 3. 의결안건
 - 제 1 호 의안 : 2018회계년도 결산안
 - 제 2 호 의안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 3 호 의안 :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
 - 제 4 호 의안 : 2019년도 직영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 5 호 의안 : 정관 변경안
 - 제 6 호 의안 : 임원 개선안

※ 문의사항은 재향군인회본부 조직복지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417-5295, 02-417-5419

2019년 3월 15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김진



2019년도 2차 이사회 개최



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 서명운동 추진 안 등 9개 안건 의결

향군은 3월29일 오는 4월16일 개최되는 제72차 정기전국총회를 앞두고 2019년도 2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개선 안, 향군회법 개정안 폐기 100만 서명운동 추진 안 등 9개 안건이 의결됐다.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KBS를 강력 규탄한다

- KBS-1TV가 지난 3월 16일 방송한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도올 김용욱이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불렀으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KBS가 최근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도적(녹화방송)이며 이념적으로 경도된 인물을 출연시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며, 이에 1천만 향군의 이름으로 KBS를 강력 규탄한다.
- 공영방송인 KBS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자유 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미

- 동맹을 폄하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 KBS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KBS는 도올 김용욱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KBS가 방송한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바로잡을 용의가 있는가?
- KBS에 강력히 촉구한다. KBS는 지난 3월 16일 도올 김용욱의 좌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막말을 여과 없이 방송하여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을 모독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출연진들을 방송에서 즉각 퇴출하라.
-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 국가정체성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 행위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영방송다운 방송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미국은 영원한 우방 '긴밀한 공조 필요한 시점'

김진호 회장, 미 8군사령부 위문 ...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마이클 빌스 미8군 사령관이 김진호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향군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장단은 3월27일 평택 미 8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군의 안보활동 3대 기조 중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미 8군사령부를 방문한 회장단은 주한미군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T-Money 1천매와 금일봉을 전달하고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처음으로 실시한 '19-1 동맹'을 성공적으로 마친데 대해 노고를 치하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마이클 A. 빌스(Michael A. Bills) 미 8군사령관과의 대담에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환기적 안보 상황

에서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자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몸 바쳐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전쟁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내에 건립예정인 '추모의 벽' 건립사업에 향군이 독자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3월 현재까지 5억여 원을 모금했다"며 "오는 6월 워싱턴 방문 시 1천만 향군의 마음을 담아 재단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빌스 미 8군사령관은 "김 회장이서 미 8군의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에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지난 '19-1 동맹' 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군사대비 태세를 굳건히 하였고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 시켰다고 설명하며 향군에 감사장을 전달하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앞서 김진호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새로 부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재임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한 바 있으며 오는 4월 중순 한미연합사령관을 방문하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고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을 마감하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운동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마감되었다.

향군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올 3월 31일까지 168일 동안 5억 2천여만원을 모았다. 성금 모금에는 향군회원, 산하업체, 각급회, 참전 및 친목단체, 보훈 및 안보단체, 일반기업,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정관계인사, 군 수뇌부, 현역 장병들도 따뜻한 온정을 보내왔으며 향군회원 가족, 자녀들도 적극 나섰다.

솔직히 아무리 뜻 있고, 명분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금이 제대로 모아질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성금모금이 본격화되고 향군의 각급회 조직과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한달 만에 1억원을 돌파하더니 12월말에는 3억원을 넘어섰다. 처음 모금을 계획하면서 12월 말까지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열기가 고조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과 단체가 늘어나 결국 금년 3월 31일까지 모금기간을 연장했다. 그 결과 많은 단체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6개월 여간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금은 전액 오는 6월 향군회장단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6.25행사의 일환으로 기념공원에 건립할 예정이며, 성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장치와 신뢰성을

을 담보할 계획이다.

'추모의 벽' 건립은 미 워싱턴 DC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둘레 50미터, 높이 2.2미터 유리벽을 설치하여 한국전쟁에 참여했다 전사한 미군 3만6천명과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8천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사업이다.

이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전쟁영웅들이다. 우리는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이 나서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번에 우리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79만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 휴전 이후 한국 근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수호에 기여해 온 350만 주한미군 전우들에게 무한한 자금을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피로 맺은 혈맹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2만 8천여 주한미군 장병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 찬 희
향군 홍보실장
겸 대변인

'추모의 벽' 건립성금 모금 5억 돌파 3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휴'와 함께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로 고인·유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안장대상

- 향군임직원 및 향군회원
- 해외교포 중 국내 안장 희망자
- 안보·친목단체 회원
- 재향군인회 상조회원

이용특전

- 분양가 할인 제공
- 안장 및 의전행사 지원

▲아외봉안담 3,000기 ▲수목장지(소나무) 89주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재향군인회상조회 1577-0720 / 02-2218-7141
홈페이지 www.korvafamily.com

2019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작업 실시

2019 6.25 전사자 유해발굴,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발굴 목표: 400구 이상 | 2019년 유해발굴 기간: 3.18. - 11.22. | 발굴 지역: 55개 지역

유해발굴과정(순서)

1. 조사 탐사
2. 발굴 수습
3. 분석·신원확인
4. 후속조치

2019년 유해발굴지역

유해발굴시 실행요령

유가족·향우회 지원사업안내

3월18일~11월22일까지 55개 지역서 진행
향군, 지원 계획 각급회 시달 ... 적극 협조

지역에 대해서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 분의 유해라도 더 찾기 위해 각 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책임지역 내 유해소재 탐사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간담회, 지역 노인회 방문 등 제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를 이용하여 국유단과 군단 발굴팀 200여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과장 송성국 중령은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며 “누군가의 아버지, 가족이었던 선배 전우들이 하루빨리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사자 유해를 찾아 유족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다.

향군은 지난 1월 6·25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지원 추진계획을 각급회에 시달한 바 있다.

국방부는 3월18일부터 11월22일까지 ‘2019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실시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장병 10만 여명이 참여해 6·25전사자 400여구 발굴을 목표로 8개월 동안 55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발굴은 과주, 화천, 양평 등 제보 지역 5곳으로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 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 발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작년에는 65개 제보 지역에서 34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26개 제보

국가유공자 위한 원주보훈요양원 기공식 전국 7번째, 내년 9월 개원 ... 전문 요양서비스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원주보훈요양원 기공식이 3월 20일 거행됐다.

강원권과 수도권에 거주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원주보훈요양원이 기공식이 3월 20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건립 현장에서 개최됐다.

전국 7번째 보훈요양원인 ‘원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원을 들여 대지 9,784㎡(2,965평), 연면적 10,515㎡(3,186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해 내년 9월 개원한다.

특히, 장기보호 200명과 주간보호 25명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요양실 50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각종 재활치료실 등을 생활공간 개념으로 설계했다.

보훈요양원은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

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훈요양원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 입소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입소할 수 있다.

보훈요양원은 지난 2008년 수원과 광주보훈요양원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전북권의 전주보훈요양원도 올해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⑦

향군, 서초동 시대 개막 ... 재도약 발판 마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3월1일 성수동에서 서초동으로 본부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향군 창설이후 일곱 번째다. 향군은 1952년 2월 창설당시 현재의 부산 수정초등학교자리에 있던 국방부 병무국의 사무실 하나를 얻어 본부사무실로 사용했다.

올해 3월1일 7번째 본부 이전 잠실, 성수동 거쳐 서초동으로

1953년8월 휴전 후에는 종로구 서린동 42번지 옛 부녀회관으로 이전하였고 1956년 10월에는 용산구 후암동의 용산세무서 건물로 옮겼다. 또 1960년 7월에는 중구 퇴계로에 있었던 옛 해군본부 옆 원호처 건물로 왔다가 1961년11월 중구 남산동의 옛 서울병무청 건물로 다시 옮겼다.

이와 같이 전후 10여년 동안 4차례의 이전을 거듭하다가 1962년 11월 마침내 향군 회원들의 숙원이었던 자체회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중구 장충동 2가 산7-2 소재에 2,454.5평의 국유지를 불하받아 1960년 11월 착공하여 2년 만인 1962년 10월 30일 완공하고 11월 1일 성대하게 준공식을 가졌다.

향군의 첫 회관인 장충동 회관은 연건평 630.8평의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로 일부 정부지원과 회원 및 현역장병들의 성금으로 신축했다.

그 후 회원의 증가와 향군의 역할이 늘어나고 조직이 점점 커짐에 따라 장충동 회관이 점차 협소하게 되고 회관의 증축 또는 신축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향군은 잠실에 중앙회관을 현대식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1979년 11월 26일 송파구 신천동일대 개발지역 사유지 4,668평을 매입하였다. 설계와 76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7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86년 9월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장충동에 이어 잠실 향군회관 건립 자립기반 마련, 조직 활성화에 큰 기여

공사를 시작하지 1년6개월 만인 1988년 2월 23일 지상12층 지하 3층의 현대식 빌딩으로 탄생되었다. 중앙회관 건립은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터전으로, 회관 운영수익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등 향군 운영에 큰 도

움이 되었다.

그렇게 안정된 가운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2000년대가 되면서 주변에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향군회관은 재산 가치에 비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그대로 운영할 경우 지역의 낙후 건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재건축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향군은 2002년 12월 ‘비전 2010’ 장기계획에 반영하여 회관재건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과정에서 두 차례의 시공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사업시작이후 2007년 8월 건축허가를 취득한 다음 2009년 3월 국가보훈처의 사업승인을 거쳐 2009년 8월 신동아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3일 향군타워 착공식을 가졌다. 공사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3년 4월 5일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다. 향군타워는 지상 30층 지하6층 연면적99,140.76m2 규모로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초고층 건물로 우뚝 섰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향군본부는 2007년 12월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빌딩으로

이전을 해야 했다. LS빌딩은 지상 10층 지하3층으로 1989년 준공된 건물이다.

향군 서초동시대 개막 재정위기 속 재도약 발판 마련

LS빌딩으로 이전해서는 IMF여파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향군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향군 창설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기억된다.

향군은 이 건물도 임대계약이 만료된데다 임대료 인상 등 경영에 부담이 되어 이전을 결심하고 비용절감, 접근의 편리성, 복지시설 이용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빌딩을 선정하였다.

이 빌딩은 1985년 준공되었으며 지상 10층 지하2층 건물로 내부인테리어를 모두 다시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서초시대의 막을 열었다. 서초는 옛 부터 서울의 관문이고 문화예술의 1번지이며 부자가 가장 많은 상서로운 땅으로 알려져 있어 향군의 앞날에도 서광이 비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실>

하회마을 보존 성금 전달

해군 류성룡함

해군7기동전단 소속 서애 류성룡함이 최근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문중화 서애 류성룡함장은 류왕군 하회마을 이사장에게 “안동 하회마을 보존 등에 쓰이길 바란다”며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서애장학금 240만 원을 수여했다. 이번엔 전



달한 성금은 매월 서애 류성룡함 승조원들(장교·부사관)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것이다.

서애 류성룡함과 안동 하회마을은 지난 2012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노인 보듬고 국민 지키는 육군 21사단 장병들

민간 화재 진압, 모발 기부, 홀몸노인 봉사 등 따뜻한 선행

육군21사단 장병들의 민간 화재 진압, 모발 기부, 홀몸노인 봉사 등 따뜻한 선행 소식이 잇따라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1사단 선봉포병대대 소속 이인성 대위와 왕홍식 대위는 3·1절 100주년을 맞은 3월1일 민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 진압해 대형 산발 확산을 막아냈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의 민간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을 찾아 화재를 확인, 인근 상점에서 빌려온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고 소방차가 도착한 후에도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소방관들을 지원했다.

또 21사단 백석산부대에서 응급 구조부사관 임무를 수행하는 김민혜 하사는 소아암 환우를 위해 1년 8개월 동안 기른 25cm의 모발을 2월16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21사단 선봉포병대대 이인성 대위와 왕홍식 대위

김 하사는 고등학교 때 본 소아암 관련 방송을 계기로 모발 기증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17년 부사관 임관 후 파마·염색 등의 시술을 하지 않고 소중히 머리카락을 관리해 왔다.

뿐만 아니라 21사단 천봉부대 소

속 정비반장 김명선 준위와 최창욱 시설관리관은 2월26일 보일러 동파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성남 용의 소식을 접하고 즉시 현장을 확인한 뒤 동파된 배관을 녹이고 보일러를 수리해 집안의 온기를 되돌려 놓았다.

지역 주민 의료지원, 소통과 화합 도모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공군5공중기동비행단(이하 비행단)이 3월12일 부대 인근 맥도말과 동협마을을 찾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펼치며 소통과 화합을 이어갔다.

이날 비행단은 이 마을이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임을 감안해 한방 진료와 침술 치료를 지원하며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폈으며 이와 함께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주민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대민 의료지원에 참여한 장병들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대민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의 미래 ‘군사과학기술병’ 첫 모집

4차 산업혁명과 연계, 18개 분야 21명 선발

육군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지난 해 특기를 신설한 군사과학기술병을 3월27일부터 병무청을 통해 첫 모집한다.

육군은 그동안 ‘청년 Dream, 육군 드림’ 정책을 추진하며 ‘군 복무를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기회’로 바꾸고, 병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취업과 학업, 능력·경력·적성 등과 연계하여 개인역량 개발이 가능한 특기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에 모집하는 군사과학기술병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직무를 한데 묶어 육군이 지난해 9월에 신설한 특기다.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전공과 경력을 고려해 육군 내 과학기술 연구 직위에 보직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군사과학기술병으로 선발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협업센터, 학교기관 등 육군의 연구개발 직위에 보직되어 전력 첨단화 및 과학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육군은 군사과학기술병 특기의 병력보충을 위해 우선 현역병 중 자격요건 구비자(관련분

야 석·박사 학위 과정자 또는 소지자) 14명을 선발해 육군 내 연구조직인 미래혁신연구센터, 장병가치문화연구센터, 핵·WMD 방호센터에서 운용해 왔다.

육군은 “이 공계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전공과 경력을 고려해 육군 내 과학기술 연구직위에 보직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승민 육군 인사관리제도과장은 “육군에 입대하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우리 군의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하며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 최고의 엘리트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군사과학기술병 제도를 통해 육군의 발전은

육군의 미래 "첨단과학군 건설"을 위한
군사과학기술병 모집

군사과학기술병(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oldier)이란?
· 병역무기 전공과 연계하여 "첨단과학군" 건설에 기여하는 군사과학기술 전사(Warrior)
· 변화하는 미래전쟁 환경의 군사체계 혁신 지원

모집 인원 00명

모집 소요 18개 분야 / 21개 직위
첨단센서(EO/IR), 핵 WMD, 방호사상, 안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설계/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나노 전기/전자, 탄약 M&S, 화학, 생화학/미생물 분석, 위험예측모형, 학생방 테러/사교 연구 등
※ 세부 모집 직위는 모집 시기에 별도 공표

모집 시기 년 2회 (3월 및 9월)

지원 연령 및 자격
· 지원연령: 만 18~28세
· 현역병 임명 대상인 사람
· 관련 직위별 적성시험 과정 이사진 사람

지원관련 문의사항
직위별 세부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병무청: www.mma.or.kr

▲ 육군본부

박연화 해병중사 백혈병 환우 위해 모발 기부

해병대2사단 선봉연대 박연화 중사가 백혈병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동료 부사관의 모발 기증사례를 보고 감명받은 박 중사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발이 고가여서 선뜻 구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10일 몇 년간 정성껏 기른 머리카락 30cm를 잘라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박 중사는 “모발 기증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꿈을 이루는



박연화 해병중사

데 내 머리카락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앞으로도 군사과학기술 분야 추가 직위를 발굴하고 대대급 부대에 전투체력지도병, 안전관리병, 심리상담병 특기를 신설하는 등 군 복무를 통해서 취업·학업·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위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시 향군, 제대군인 취업지원

나주시와 업무협약, 제대장병 고용서비스 지원



전남 나주시 향군은 3월6일 나주시와 '예비군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예비군 및 제대를 앞둔 국군장병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예비군을 포함해 군 복무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지역 군부대

인 육군 제31사단 김천일 대대도 함께했다.

나주시와 나주시 향군, 김천일 대대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효율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사항 협조 △찾아가는 취업이동상담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취업지원 행사 참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미취업자들의 경력개발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군상조회, 전통한지 수의 활용한 상조상품 개발

신협·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과 MOU

재향군인회상조회가 3월25일 신협중앙회,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과 '전통한지 수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4자 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전통한지 수의를 활용한 상조상품 개발과 신협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신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한지수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은 각각 품질보증과 한지수의 생산·공급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한지수의 상조상품 및 장례서비스를



신협의 전국 지점망을 통해 판매해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재향군인

회상조회 김광열 대표,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최영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진주 향군, 우리들 치과와 협약

경남 진주시 향군(회장 최신웅)과 우리들 치과 병원(병원장 정형주)은 3월26일 우리들 치과병원 회의실에서 향군가맹점 의료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향군인회 진주시지부 회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들치과병원은 협약을 통해 재향군인회 회원증을 제시하면 비 보험 진료비의 10%를 감면하게 된다.



◆위기 극복의 첨병 / 충북 청주시 향군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재정자립과 회 위상 제고



각 지역에서 안보 및 봉사활동을 펼치며 향군의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는 각급회로서는 지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청주시 향군은 지자체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로 재정자립과 향군위상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모범적인 회 운영사례로 꼽힌다.

화관 리모델링 통해 안정적 임대 수익 확보

지난 2016년 청주시 향군은 2003년 건립되어 노후된 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7년 전기승압, 조명공사 등 회관 기능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2015년 통합과정을 거쳐 관리하게된 청원군 향군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도 실시했다.

이 과정 속에 채수민 회장을 비롯한 청주시 향군 임직원들의 노력이 담겼다. 특히 채수민 회장은 전 현직 기관장과 의회관계자 등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향군의 활동과 보조금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들을 설득해 나갔다.

그 결과 3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획득, 두 지역의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로 인해 청주시 향군은 전 임대업장의 임대료를 10% 인상할 수 있었고 월 1천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으로

회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 향군은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회 등 각급 기관과 유대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회관 리모델링 사업뿐만 아니라 안보와 공익을 위한 향군의 모든 활동에도 기관들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실 있는 안보행사 개최, 타 조직의 귀감

사실 6·25 기념행사나 향군의 날 행사 등은 여타 시군구회 행사규모를 뛰어넘는다. 웬만한 시도 행사와 견줄만하다. 지난해 청주시 향군은 6·25 행사 보조금으로 시로부터 3천만 원, 향군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1천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 다른 시군구회와 견주어도 상당히 많은 액수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 향군은 6·25 전적지 등 안보 현장견학 등 대국민 안보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3천3백2십만원을 지원받았다. 거의 1년에 8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바탕에는 청주시 향군이 지자체와 쌓아 온 신뢰가 깔려 있다. 지자체가 직접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 들 즉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보훈가족 위로행사 등을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자체와 상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 운영을 위한 비용은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 수익으로, 회 위상 강화를 위한 대외 활동 비용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마련해, 전국 최고의 내실있는 조직으로 자리잡아가는 청주시 향군은 원활한 회 운영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각급회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 사진전, 호국영웅 추모 대전 충남·제주도 향군... 국민안보의식 결집



대전·충남 향군(회장 박재운)과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이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추모 사진전을 개최했다.

대전 충남 향군은 3월18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역사 2층 대합실에서

서,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3월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공항 1층 대합실에서 각각 사진전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회원의 목소리

충무공 애국정신 본받아 향군의 일원으로 소명 다할 것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제 474주년이다.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인 서울시 중구(인현동)는 2005년부터 기념행사를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충무공의 호국정신 등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많은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유비무환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다.

충무공 탄신 474주년 나라사랑정신 되새겨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인 군사전략가요, 참 군인이다. 또 하늘이 내리신 조선의 수호신이였다. 선조 25년(1592?1598) 임진왜란 당시 옥포대첩,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을 통해 일본 수군을 물리친 세계적인 명장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수군을 이끌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특히 8월15일 장병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주시시키고 13척(일설에 12척)의 전선과 빈약하리만치 적은 병력으로 133척의 전함과 많은 수의 적과 대결하여 승리한 명량해전의 승리는 전 세계 해전사에서 찾아 볼수 없는 빛나는 전과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명량해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조선은 패망하고 나라를 잃었을 지도 모른다.

명량해전의 패배로 싸울 의지를 잃은 왜군은 선조 임금에게

일본 땅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 땅의 백성을 짓밟은 왜군을 어찌 살려 보낸단 말인가?”라며 1598년 11월19일 노량에서 퇴각하기 위하여 집결한 500여척의 적선에 맹공을 가해 왜선 500여 척을 침몰시켰다. 일본 땅으로 돌아간 배는 50여 척에 불과했다.

이런 연유로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뛰어난 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난 3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베트남, 필리핀 출신 생도는 임관식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게 됐다”며 “장군의 정신을 본받아 자국의 군을 강한 군대로 육성하고 양국 간의 군사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성웅 이순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명장으로 기억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원군의 모함으로 두 번씩이나 백의종군을 하는 부분이다.

백의종군(장군에서 강등되어 평민의 신분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의 역울함과 모친이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서 그의 애국적 면모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해전의 연이은 패전으로 위기를 느낀 선조는 결국 백의종군 하던 이순신 장군에게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했다.

장군의 애국심과 충성심 향군의 일원으로 본받아야

기울어 질대로 기울어진 조선 수군의 전력을 불태 한 번 쯤 몸을 사릴 만도 한 상황이지만 이순신 장군은 굴하지 않고 선조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글귀인 “신(臣)에게는 아직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고 이순신은 죽지 않았습니다”라는 상소를 올리고 전장으로 출격했다. 자신의 영달은 뒤로한 채 오직 나라만을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온 국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다.

충무공 탄신 474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순신 장군의 끝없는 애국심과 충성심, 고귀하고 숭고한 인격, 군인으로서의 리더십과 통솔력을 되새기며 국가안보 제2보루, 최고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본회 안보부장
신 동 규

강원도 향군, 오션투유리조트와 MOU



강원도 향군(회장 권동용)은 3월28일 강원도 고성 삼포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오션투유리조트와 향군가맹점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안양시 향군, 권총실탄사격대회



경기도 안양시 향군(회장 김기홍)은 3월11일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제4회 안양향군 임직원 권총실탄사격대회를 실시했다.

김기홍 회장은 “안양시 안보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안

보에 대한 과수꾼으로서 자질을 겸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4년째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향군은 이날 안양시 의회와의 친목을 다지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시의원들을 초청했다.

미 동부 향군, 미 향군 100주년 행사 참석



한미 향군 간 유대 강화

미 동부 향군 김경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3월23일 메릴랜드 애버딘에서 열린 미 향군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한미 향군 간 유대를 강화했다.

김경구 회장, 김용하 MD분회장, 우성원 고문, 안경조 자문위원 등 동부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브레트 라이스타드 미 재향군인회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2월21일 ~ 3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3월19일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최병욱 학과장 일행의 방문을 맞아 안보 관련 학술교류 등 상호 협력방안 토의.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3월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내 화합의장에서 '위대한 100년, 희망의 함성'을 주제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이어 위대한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달구벌대종 타종식 참여.



서구회 : 3월7일 호국보훈단체장과 구청 관계관들을 초청, 보훈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 기타 발전 사항에 대해 토의. 3월4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2월26일 구청 구민 홀에서 열린 대구 서구 사랑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창립15주년 기념식에 참석, 여성회 부회장이 협의회장상 수상.

동구회 : 3월1일 망우 공원 내 대구경북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앞 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행사 참석. 3월11일 대구시의회를 방문하여 동구 '학생 호국문화대전' 개최와 관련한 간담회 가제.

수성구회 : 3월12일 범물실버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남구회 : 3월1일 앞산충훈탑에서 거행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

달서구회 : 여성회는 3월12일 장기동 주민센터에서 '재향군인회 여성회 임무와 역할'을 주제로 안보교육.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3월1일 제100주년 삼일절 만세운동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3·1만세운동의 참 뜻 기려.



계양구회 : 3월1일 계양구 장기동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및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행사 참여.

강화군회 : 3월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태극기를 들고 약1.2Km의 거리 행진

동구회 : 2월26일 다음 행정사(대표 박유봉)와 향군 우대 가맹점 협약을 맺고 회원 행정편의 지원.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2월23일 정동진~부채바위~전망대~심곡항에 이르는 해안선 구간을 답사하는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3월14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다낭지역 안보현장 견학, 안보의지를 결집.



양주시회 : 3월1일 양주 가래비 3·1운동 순국 기념비 광장에서 거행된 3·1절 기념행사 참석.



남양주시회 : 3월11일 남양주시 향군회관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업무 논의.

과천시회 : 3월12일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해 남양주 축령산 등반 실시.

강원도 향군



태백시회 : 여성회는 3월2일 태백시 상장동 태백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반찬 조리 등 점심 봉사활동.



고성군 거진읍회 : 3월1일 노인 가구를 방문해 노후 보일러와 양변기를 교체하는 등 접수리 봉사활동.



양구군회 : 3월12일 환경실천연합 양구지회, DMZ생태관광협회와 함께 사명산 일대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3월5일 가화한정식에서 지역 16개 안보보훈단체 연합인 충북미래연합(대표 고종훈, 충북향군 회장) 간담회를 개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논의.



괴산군회 : 3월8일 중원대입구부터 괴산제대산단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3월19일 흥범식 고택 일원에서 괴산장터 3·19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참석.

청주시회 : 여성회는 3월11일 관내 개신동 배수지에서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실시.

진천군회 : 3월9일 6·25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초청하여, 위로연을 개최.

제천시회 : 3월20일 불우이웃 나눔 행사인 자장면 무료배식 봉사 참여.

대전 충남 향군



대전 대덕구회 : 여성회는 3월4일 대덕구거리환경 정화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신탄진역 주변에서 담배꽂초, 휴지 등 각종오물을 수거하는 봉사활동 전개.

대전 서구회 : 3월5일 향군회관에서 이현우 안보교수를 초청, '되돌아 본 그 시절 그리고 오늘' 이을 주제로 안보강연.



보령시회 : 3월14일 새봄을 맞이하여 대전천 일대에서 환경대청결 운동 실시.



아산시회 : 3월9일 선장면 기미독립무인멸해운동기념탑 및 4.4만세운동 기념동상에서 현충시설물관리 및 향군그린운동 실시. 3월16일 호국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곤란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

전라북도 향군

진안군회 : 2월27일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고 안보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거제도 포로수용소 견학.

고창군회 : 3월1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3월15일 향

군회관에서 지역 예비군 지휘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간담회.

부안군회 : 3월1일 군청광장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부안군민 선언대회에 참석,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읍사무소까지 행진. 여성회는 3월11일 한국 신경외과 주차장앞 광장과 동신아파트 앞에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노인을 올리는 '방문관매' 의 허위 과대광고 근절 캠페인 전개.



김제시회 : 2월26일 100주년 3·1절을 맞아 김제 만경읍 3·1운동 기념탑에서 만세운동과 태극기 무료 달아주기 운동 실시. 3월19일 김제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광장에서 실시된 3·19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전주시회 : 2월22일 유아동 소재 이중역에서 전주한옥레일바이크(주)와 향군 우대가맹점 협약식 가져. 3월6일 보훈회관에서 12개 안보단체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단체협의회 회의 개최. 3월9일 전주신흥고, 풍남문일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및 전북 최대 규모 독립만세 운동 3·13만세 운동 재현행사 참석.



익산시회 : 3월20일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왕궁 영묘묘원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 편백나무 3,000여 본 식재. 3월1일 슝리 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여성회는 2월22일 배산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

완주군회 : 3월1일 완주군 삼례읍 삼례시장에서 열린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 참석.

군산시회 : 3월1일 군산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2월28일 신인 제9585부대 1대대장을 초청, 군경합동묘지 참배 후 간담회 실시.

순창군회 : 3월1일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열린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2월27일 순창군 풍산면 노인회관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재능기부 활동. 2월23일 순창군 고추장민속마을에서 거행된 순창 전통장 담그기 체험행사 지원.

정읍시회 : 3월1일 태인초등학교에서 열

린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남원시회 : 3월1일 구 역전 3·1탑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여성회는 음료, 짜장 봉사활동 전개. 3월12일 전남 여수 일대에서 안보전적지 견학활동 전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2월22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사무국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활동 방향 모색.

광주 북구회 : 여성회는 3월7일 두암동 소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점심식사 배식 봉사.



목포시회 : 2월28일 목포역·여객선터미널·공영버스터미널에서 '목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4대 중점실천 과제인 친절·질서·청결·나눔 운동을 통한 시민의식 선진화 주민제도 및 홍보활동 전개. 3월8일 목포 아동원을 방문, 수용원아 위문.

나주시회 : 여성회는 3월14일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활동.



무안군회 : 3월1일 승달문화회관과 무안 읍내에서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및 만세 운동 재현행사 가져.

해남군회 : 3월1일 3·1운동 100주년 행사 및 해남군 항일의병 합동추모제 참석. 3월8일 4대대 다독다독 행촌카페 도서관 개관식 참석. 3월12일 여성회는 마산면 가나안 요양병원을 찾아 미용 봉사활동 실시.

장성군회 : 3월1일 장성역 광장과 3·1절 기념탑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독립만세 재현행사.

강진군회 : 3월1일 서성리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참여.

영암군회 : 3월6일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후 지역 왕인부대에서 사격체험. 3월7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햇불연대장 오창환 대령을 맞아 업무현안 토의. 3월14일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 미암면 미암리 산48번지에 편백나무 식수.

영광군회 : 3월1일 만세운동 최초 발원지 영광 향교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행사 참여. 여성회는 차 봉사활동 전개.

경상북도 향군



칠곡군회 : 3월1일 장곡 섬내공원에서 장곡 3·1만세 재현행사에서 나라사랑 시낭송회와 시가행진 행사 실시.

영주시회 : 3월1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3월11일 축산회관에서 3260부대 대대장, 예비군중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대강화.

영천시회 : 3월6일 향군회관 주차장에서 소화기 작동방법 및 소화기 시연 등 소방훈련 실시.

군위군회 : 여성회는 매주 목요일 군위군 노인재가지원센터를 방문, 손맛사지 봉사 실시.

문경시회 : 3월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문화원, 자유총연맹 등 8개 단체와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안동시회 : 3월1일 3·1절 기념행사와 범국민 서명운동 무궁화 대축제에 참여.

영덕군회 : 3월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제35회 영해 3·18 독립만세 문화제 및 추념식'에 참여.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여성회는 3월12일 김해 보훈요양병원을 찾아 봉사활동 전개. 3월19일 초임 시·군·구회장 6명을 소집하여 조직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창원시 의창성산군회 : 2월26일 향군회관을 찾은 김종환 의창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



통영시회 : 3월1일 한산대첩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3·1절 만세운동 재현 거리행진에 참여. 2월22일 이순신공원 내 위령탑에서 거행된 해군 제45주년 159기 순직 합동 위령제 참석.

합천군회 : 여성회는 2월13일부터 2월26일까지 합천군축구장에서 펼쳐진 제55회 춘계고등학교 축구연맹전에서 음료봉사활동 실시. 3월19일 문화예술회관앞과 3·1 독립운동 기념탑앞에서 열린 제100주년 기념 합천군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석.



함안군회 : 3월9일 전남 고흥 소록도 일대 안보현장 견학. 3월1일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거제시회 : 3월8일 거제시청을 방문, 변광용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현안 업무 토의. 3월18일 8358부대 대대장 및 예비군 지휘관들과 간담회.

거제시 장승포동회 : 여성회는 3월15일

보훈가족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양산시회 : 2월26일 여성회 사무실 개소식. 3월9일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밀지 전달 릴레이 행사에 참석. 여성회는 3월16일 장애인 복지시설 늘푸른집을 찾아 중증장애인 목욕 봉사활동 실시.



밀양시회 : 2월24일 밀양공설운동장~내이동~부북면 일원에서 열린 제16회 밀양아리랑마라톤 참석.

하동군회 : 3월18일 적량면 호국공원에서 훼손된 태극기와 향군기를 교체하고 주변 청소를 실시.

하동군 진교면회 : 3월9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일원으로 안보현장견학 실시.

남해군회 : 여성회는 3월12일 소망의집을 방문, 봉사활동 실시.

고성군회 : 3월19일 3·1절 100주년 맞이하여 회화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거행된 3·19 회화면 배둔 장터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실시.



울산 동구회 : 3월1일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진문 선생묘역 및 화정공원 일원에서 독립유공 서훈을 받은 서진문 선생님의 위업 및 독립만세운동 정신 되새겨.

울산 남구회 : 3월1일 3·1절을 맞이하여 현충탑 참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울산 중구회 : 3월12일 중구 노인복지회관 급식소에서 급식봉사 실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2월27일 제주시 칼호텔 로즈홀에서 대의원 및 여성 회원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안보활동 지침 교육' 실시. 3월15일 서귀포시 향군과 함께 해군 제7기동전단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 설명 및 환담 실시. 3월18일 화목원에서 향군원로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서귀포시회 : 3월13일 서흥동 향실가든에서 임원 상견례를 갖고 올해 현안 업무 토의.

친목단체 활동

성우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미래비전 5개항 발표



“안보태세 강화 통한 진정한 평화 유지” 다짐

대한민국 성우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2월26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안보태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평화 유지를 다짐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성우회의 변함없는 우국충정을 깊이 존경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모든 여정에 성우회원들이 항상 동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창립 3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성우회는 향후 30년을 내다보며 성우회의 미래 비전 5가지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우리는 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전역 군

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신성한 소임을 계속한다. 둘째, 우리는 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우선으로 활동하며 비정치·비영리·비종교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셋째,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한다. 넷째, 우리는 한미동맹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의 기반임을 믿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한다. 다섯째, 우리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정론 및 정책 개발에 노력하며 국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헌신한다. 등이다.

기념식 후에는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특강이 이어졌다.

정기총회



인사행정병과동우회(회장 김기춘)는 2월22일 전쟁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회장으로 김기춘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 이 취임식



육군정보통신장교동우회(회장 김재민)는 2월21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실시했다.

정기총회



헌병전우회(회장 권영욱)는 2월22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3월21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호연)는 2월28일 덕산스포텔에서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포병전우회 : 4월2일 회 사무실에서 임원회의, 4월11일 석촌호수에서 자연보호활동
- ▲정보동우회 : 4월10일 서울대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 ▲광복군동지회 : 4월17일 국립현충원 임정요인묘역에서 지정천장군 62주기 추모제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4월18일 4.19민주묘지유영봉안소에서 4.19혁명 희생영령추모제
- ▲갑종장교전우회 : 4월19일 육군보병학교에서 동춘상 시상 및 추모제
- ▲상이군경회 : 4월24일 중앙보훈회관에서 정기총회
- ▲영관장교연합회 : 4월26일 삼정호텔에서 정기총회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현악 업소현황

전국 1,457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식당/음료

• 한성숯불갈비 (울산시 동구 옥류로 9) 052-236-3573 : 10%

기타

• 모두투어 늘푸른여행사 (경남 양산시 강변로 442) 010-2086-9977 : 3~5%

• 오토오아시스(아카데미점) (울산시 동구 방어진 486) 052-201-4244 : 10%

• 울산테마식물수목원 (울산시 동구 쇠괘길 33-1) 052-235-8585 : 50%

• 코바벤텀카(주)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40) 033-643-1022 : 3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대한병원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590) 1522-3266 : 10~2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위플라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인천마디병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204) 1644-8344 : 2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렉씨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양레저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아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랑프리안경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62)

032-426-9177 : 20~30%

•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남 천안시 월봉로 48) 041-570-7753 : 20%

• 당진장례식장 (충남 당진시 남부로 28) 041-354-4444 : 10~15%

• 두툼한공룡갈비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82) 033-635-7383 : 10~2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051-320-2000 : 20%

• 안양장례식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031-456-5555 : 20%

• (주)북의정부자동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57-19) 031-878-100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전북로 153) 043-241-6464 : 10%

• 행복주단 (대전시 동구 중교로 119) 042-257-4084 : 20%(현금결제)

향군장학기금

※ 기간 : '19.2월 23일 ~ 3월 22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110)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5)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1(33)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3)
- 일반회원 다온중학교 교사 이미래 1(30)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24)

▶ 정기 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54)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4)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우여! 어디에 ...

• 이창한씨가 2011년도 논산훈련소 30연대 2중대(?) 조교님을 찾습니다. 이창한씨는 2011년도 3~ 4월 경 전 3중대 훈련병이었고 야간 훈련이 끝나고 텐트로 복귀할때 제가 다른 중대로 잘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 소대장님이 조교를 시켜 3중대로 복귀 시키라 지시했고 조교 한분이 저를 3중대로 데려다 주었는데 일병~상병 계급의 2중대 조교님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이창한씨는 조교님이 너무 친절했다며 전역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010-4022-0531>

• 오해철씨가 1977년부터 1980년 당시 같이 근무했던 5공병여단 3대대 전우 서명호(전역후 개명 "서석호" 했다는 이야기도 있음)를 찾고 있습니다. <010-5071-7054>

• 1996년부터 9월부터 1998년11월까지 12사단37연대 3대대 서화대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했던 김수웅씨가 본부 군수선임이사 이동현 선임하사를 찾습니다. <010-7771-4649>

• 양승철씨가 1967년에서 1969년까지 27사단 78연대 수색중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우를 찾습니다. <010-3563-9506>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환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정보

4월에 가볼만한 곳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

왕인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전승하기 위해 4월4일부터 7일까지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영암의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에서 펼쳐진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아 즐거움과 추억은 물론 역사의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왕인 따라 달빛걷기, 구림마을 자전거 여행, 영암관광 1일 버스투어 등 총 9개 부문 45종의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운영되는 축제는 백제문화부터 세계를 겨냥한 외국인 프로그램까지 알찬 재미로 갖추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061-470-2350>

고려산 진달래축제

지난해 35만명이 방문하여 수도권 제일의 봄 축제에서 전국 제일의 축제로 거듭난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4월13일부터 21일 강화군 고려산 일대에서 열린다.

진달래축제는 강화의 유구한 역사문화와 청정 강화의 자연환경을 단숨에 체험할 수 있어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북돋우는 대한민국 웰빙 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을 비롯하여 평화전망대 등 각종 역사문화 유적지와 강화섬살, 순무, 약쑥, 인삼, 새우젓 등 불거리, 먹거리도 풍부해 강화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다.

<강화플랫폼21 032-933-8120>

기장 멸치축제

봄철 대표적 먹거리인 기장멸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장 멸치축제가 4월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대변향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는 천혜의 해안경관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21C 미래형 해양관광도시 기장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멸치의 성어기인 매년 4월말에 개최되며 낭만과 추억을 만드는 동시에 감동적 축제 특산물을 통한 각종 체험마당을 마련,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051-721-4063>

강릉 경포벚꽃잔치 2019

4월2일부터 7일 강릉 경포대(도지방유형문화재 제6호)를 중심으로 경포호수를 둘러싼 4.3km 호수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벚꽃 축제 향연의 장이 펼쳐진다.

벚꽃 개나리 수선화등 아기자기한 작은 꽃들이 꽃 세상을 이루어준다.

웅장한 고목나무는 벚꽃나무가지를 늘어뜨린 채 꽃망울을 터뜨려 상춘객을 부르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가 하면 경포대 진입로 3킬로미터에서부터 꽃 축제 경연 전시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이어지는 꽃 세상을 이루는 축제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강릉시 관광과 033-640-5913>



건강정보

'양극성 장애(조울증)', 20대 청년·70대 노령 층 빠른 증가

증상
 양극성 장애는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 때 있는 조증과 기분이 두드러지게 저하된 우울 상태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우울증과 유사하게 슬픔이 지속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식욕, 수면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의욕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증 상태일 때는 신체, 정신 활동이 활발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며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인
 양극성 장애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한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뇌 안에서 기분 조절에 관련

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도 병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뇌의 기분조절 능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진단·검사
 현재 양극성 장애 진단을 위한 특별한 검사는 없습니다. 모든 진단은 환자의 현재 임상증상과 과거의 기분상태가 어땠는지를 심층면담을 통해 평가한 뒤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극성 장애가 의심된다고 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방법
 증상의 빠른 안정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기분안정제와 항정신병약물 등이 주로 쓰입니다. 증상

이 심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꼭 입원치료를 고려해봐야 되고 증상이 안정화되었다 하여도 양극성 장애는 자주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치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치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증상을 악화시키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사회적 갈등을 다루게 됩니다.

예방법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리듬에 큰 변동이 오면 기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늦잠·낮잠을 자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낮의 활동을 늘려서 햇빛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